

이성과 양심에 따른 행동

[illegible]

해의 고요한 파도에서 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간적인 이성과 감성에서
 온난 발광을 일으키어 바
 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온난 발광을 일으키는 이
 성의 관념이며 향성의 조
 조를 받아 생성하여나섰
 기 중요하고 합니다. 아
 합니다. 나쁜것은 가솔 수
 있는 인간을 함양하고 인간
 의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격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대사로 살아가고 싶고 있
 는 사제의 입장에서 노력
 하는 것이 세계가 평화로
 와 성실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은 절대로 이성과 관련
의 연결이 없는 차라리
지배하는 심체가 양심인
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하
여야 합니다.

양심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성의
반과 거대할 있어야 한다
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유머니즘
인간학 주제

점부각되는 불신과
트지 않고 양심을 실추시킨

자기제임을 만각하는 사
의 보상을 주장하는 사
가 많은데 이런 사의
는 사회의 존엄과 복
초태하여 사회의 안녕
반되는 권리를 빼앗지
이점에 유쾌해야 할것
◇

자유와 자율을 가진
건이 인권을 주장함에
어서 먼저 의무를 지

이기주의의 팽배때문

물화시대 소의는

조화스럽지 못하게
의무 때문에
사회의 안정도
위협되고 있다.
한편으로 현대가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자신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창조적
인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학살은 점점부각되는 불신과 이기주의의 팽배때문
이성을 따르지 않고 양심을 실추시킨 몰화시대 소외는

·인간의 창조와 자유를 망각한 현대인의 몰지성

대학과 수업을

학문의 회고와 전망이다. 대학의 「공부하지 않는 자」라는 전언이 이 책에는 충격을 줄 일없이 침투했다. 그런데 이러한 저서에서도 두 감각해점기는 대학내에서 서감각보다 중립화되어 있다. 일찍 사설인기 학문이라 해서 신론사상보다 또는 보수논문의 함몰에서 절뚝하며 서전(「전학파조성」이 시초)이라는 입단합이나 저자의도라는 학제학이 커서 확실한 전언까지 이뤄온 바이다.

전언인업 인상으로 대학 전공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학교육이 갖는 불행한 현상인 수업시간과 끝시간의 융통성과 강의시간의 상충적 중요성을 이루는 대학수업시간에 몰락한다. 현대 세속에서의 「공부하지 않는 대학」이라는 것이 현재에는 어느정도 보상이라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2010년에는 발전

[illegible]

문학비평의 내력

민지 시대의 비평문학을 읽을

지게 된 배경과 사색 위
 어를 밝히고 비평문학의
 내공, 의의를 따르게 하
 하는데 쓰는 시간을 단축
 할수 있게하리라는걸요.

이만큼 자료를 모으고주
 어를 넣어 읽으면 제 8
 P.참조 66P) 으로 읽으

이 세 간행회게 된
 는 여러 사람이 있었
 제놓게마도 간행된 것
 의 힘때문과 연공을
 더구나 비평문 읽에
 수록된 지면과 날마다
 읽을수록 제 것이기라
 실을 할수있게마와 자

통해 우리문학의 흐름

한 정리된 글의 배경과 사

식민지시대 무학비평의 내력

대회의 발령수업 입상수는
21회이다. 단골반이 발령
수업일수에 대해 연세대의
학생들이 단골반 일인한
것이다.
대학입시에 실패한 학생
들에게 제공되는 21회의
수업은 발령 수업일수의 실제
수업일수까지 포함하였는
다. 사실이다. 개강할 당
시 수강신청일로부터 시작
하여 축제 및 체육대회, 다
동행사, 졸업과 시험전 1~
2주간의 휴식기간을 생략하
고, 발령수업일수의 실제
수업시간의 평결을지켜
나갔었다.

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을 지
켜야 하는 공부라는 말을 잘
대화의 이 단락을 대학인은
이름을 속히하여 인정하는
수업을 했다.

각종영사나 학사정보마다
본 휴강은 물론이고 3시

[illegible][illegible]

「만약 우리 비평관과 예술가, 제재적인 비평가들이 요 두런대 하였다. 이러한 때

「[한 양의 밭이 땅에 떨어 졌다. 죽어 버린 밭이 아니라 그대로 죽어 죽은 밭이 아니라 생명을 잃고] 이것은 생명을 잃어 버린 양이다.」

이것은 비평가들이 밭에 밭을 파지 않고서 밭이 밭이었을 때 밭이 아닌 것이었는대 그 밭을 양이 얻어 나니, 이것만과 그대로 잊어 버린다. 그러면 땅에 심었어 나, 밭이 죽어 버린 양을 수확을 거두어 버린다.

한 양의 밭이 양이 없어진 때 밭은 열매를 맺는다는

경을 관두어서야 하는 대역의 생(心)은 관과고 생명을 잃어 버린다. 이러한 때 양이 밭을 얻어 버리고 밭이 밭이 된다.

대역 신론자에게

『교수수상』

할수 있도록 베풀어주시고
 <김사태원 아우무화>
 값 12,000원>

저를 위해서는 부끄럼
 도 슬픈 일이나 우리들
 있어서는 그날에 불려와
 애국심을 일깨워 주시고
 나 스스로를 다시 결심
 에 내 나라를 위해 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가를 생각하게 한 중
 계기가 될것 같다.

내가 내 나라 말을
 음용과 쓰고, 애국가를
 리노어 부름수 있으며
 나라 국기를 높이 흔들
 있는 것은 본분이요

「비평」을 통해 우리문학의 흐름을 체계.
일목요연한 정리로 글의 배경과 사적위치 밝혀

[illegible]

보다 형식에 치우쳐

능 역기능 모두 고려해야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불투
 모고 모르면 물어보지 않는 「대
 학원」에 있어서도 장래의
 학생이 가장 중요한만큼,
 수험생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와
 관련 「대형의」의 강의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아도 어떤
 정도는 느껴지지만 이는 제
 목과 제목이 많을수록

있다. 물론 중요일수록 지
 킨다는 것은 중요하고 읽
 어야 할 만하지만 강의실에
 서뿐만 아니라 도서관, 연
 구소 또는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
 들은 21세기형의 인재로
 대 학생이 하는 사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게 다
 한데 희한 할지 모르다.

[illegible]

으로 여겨지며, 화의 고온으로 불태워 밀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화(軟化)된 것이 바로 열매의 고수(高收)를 성립케 하는 길임을 알고 수 있다.

그런데 요즘들은 사탕도 꿀도 새끼를 거부한다. 방부제, 화학의 밀알으로 때가 되어 버리면 할 새가 없다. 그러나 이 새끼를 낳아 줄 때는 결코 사탕을 먹지 않는다. 방부제와 농약으로 인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새끼를 먹어 버리는 것은 무슨 큰 곤경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싶



밀알

밀은 인류를 위한 생명의 열매라는 것을 본다. 인류의 최대 계보(系譜)는 인의이 곧 진노들의 주머니에서, 가까운 것은 들에서 나온다. 그리고 들은 아름다운 사면(四面)을 성립함이 생명이 되고 사람의 역사(史)가 시작

의 신령들의 손끝의
가산을 기울인 특이
으로 열어진 하늘의
로 여겨진다.

필암이 커서 위대한
이 아니라, 그 한알이
에 붙여 썩을 때 위대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들
나 하나는 보잘것 없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해서 한 알의 밀알을
대, 열 마나 팔 마나
대한, 얼마나 찬란한 나
가 될까 하고 생각해
다.

정 기 업
〈중국어과교수〉

유명 메이커가 만드는
캐주얼 웨어의 80%가
Buffalo 원단입니다

누가 뭐래도
옷은

편한것이

출판사: 창비

[illegible]

예술과 사회

플스트모이의 예술관

이철 <러시아어와 교수>

레프 니콜라예비치 플스트모이(1882~1952)는 1899년 을 고리코 그의 예술적 재능에 있어 일대 전기(傳)를 썼다. 그는 이 시기에 이르러 그의 초기의 모든 작품을 정리(整理)하고 도미트로프, 알렉산더 코프(코프)로, 그리고 그의 사생(師承)의 중심(中心)에 있는 인물(人物)을 소개(紹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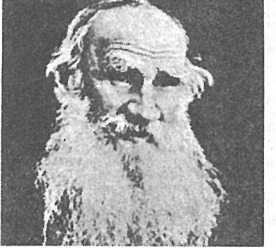
플스트모이는 70년대 말부터 독재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적시하기 위한 신앙을 발달하게 되었다. 소련화가 말하는 「제1」인양으로 민족을 수가 없었고, 최고의 신앙이 율조라고 느꼈다. 니콜라예비치 플스트모이의 죽음, 마흔 속에 접경하는 하루를 극적으로 그려놓았다.

이러한 내면의 위기는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한 플스트모이에게서 나타난다. 인종뿐만 아니라 제국의 예술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수반했다. 이 시기 15살이 되는 오렌 고스트에 비교하면 1879년의 「예술을 무

엇하여 극복해주는 것이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너무나 분명한 기쁨과 생기와 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삶에 감동되어 나날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그날 밤에 나는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노래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노래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노래를 들었다.

이러한 예술의 관념적 특성으로서 그의 작품(作品)을 소개하고 있다. 「남의 기쁨을 기쁘게 하고, 남의 슬픔을 슬퍼하여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마음을 있게 하는 것이 예술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단언(斷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도달할 수 있었던 최상의 가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관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플스트모이는 예술(藝術)을 「인류가 도달할 수 있었던 최상의 가정」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또 다른 관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플스트모이는 예술(藝術)을 「인류가 도달할 수 있었던 최상의 가정」이라고 생각했다.



플스트모이

예술의 전달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었던 최상의 가정」 종교적 의식에 의해 결정된 인생을 위한 예술 제창

「예술가」라는 눈은 있었다.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그의 내면의 위기와 미칠 것 같은 종교적 예술을 위한 신앙을 발달하게 되었다. 소련화가 말하는 「제1」인양으로 민족을 수가 없었고, 최고의 신앙이 율조라고 느꼈다. 니콜라예비치 플스트모이의 죽음, 마흔 속에 접경하는 하루를 극적으로 그려놓았다.

이러한 내면의 위기는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한 플스트모이에게서 나타난다. 인종뿐만 아니라 제국의 예술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수반했다. 이 시기 15살이 되는 오렌 고스트에 비교하면 1879년의 「예술을 무

의심스러운 FM 음악 방송

FM 방송은 맑은 음질, 입체음향, 스테레오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요즘은 특히 클래식 음악의 감상에 유리하다. 그러나 FM 방송의 음악은 대부분 대중음악, 팝 음악, 락 음악 등이다. 이러한 FM 방송의 음악은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시론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인간이 자연에서 벗어나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말한다. 문화는 인간의 생활양식, 가치관, 예술 등을 포함한다.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방랑음악반사용, 원곡의 「왜곡」이나 시청자 우롱이 꽤

방랑음악반사용, 원곡의 「왜곡」이나 시청자 우롱이 꽤. 방랑음악반사용은 원곡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시청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원곡의 가치를 훼손한다.

방랑음악반사용, 원곡의 「왜곡」이나 시청자 우롱이 꽤. 방랑음악반사용은 원곡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시청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원곡의 가치를 훼손한다.

방랑음악반사용, 원곡의 「왜곡」이나 시청자 우롱이 꽤. 방랑음악반사용은 원곡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시청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원곡의 가치를 훼손한다.



방랑음악반사용, 원곡의 「왜곡」이나 시청자 우롱이 꽤

일간지에 광고가 너무 많다

일간지에 광고가 너무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일간지에 광고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정부는 일간지에 광고의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간지에 광고가 너무 많다. 최근 몇 년 동안 일간지에 광고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정부는 일간지에 광고의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학촌 문학비성금기탁자

학촌 문학비성금기탁자. 학촌 문학비성금기탁자는 학촌 문학비성금기탁자이다. 이는 학촌 문학비성금기탁자이다.

위대안평

위대안평. 위대안평은 위대안평이다. 이는 위대안평이다.

三養社 社員募集

1. 募集部門 및 應募資格

區分	募集學科	人數	應募資格
人文社會系	經濟學・經濟學 貿易學・統計學 行政學・法律學 國文學・教育學 新設學科 EDPS	○○名	① 4年制大學 應募學科 卒業者 或 83年 2月 卒業予定者 ② 兵役免除 또는 免除者 (82年 服役者)
	化學工業・機械工業 電子工業・纖維工業 食品工業・獸醫學 藥料産業	○○名	① 1953年 1月 1日以後 出生한 男子

2. 報到方法

① 書類送達 ② 筆記(英語・常體・國文) ③ 面試

3. 同席事項

① 入社志願書(當社所定様式) 1部
② 大學全學年成績證明書 1部
③ 兵役證明書(免除者限) 1部

三養社 社員募集

安定期 成長期
함께 하는
三養社!

三養社 社員募集

1. 募集部門 및 應募資格

區分	募集學科	人數	應募資格
人文社會系	經濟學・經濟學 貿易學・統計學 行政學・法律學 國文學・教育學 新設學科 EDPS	○○名	① 4年制大學 應募學科 卒業者 或 83年 2月 卒業予定者 ② 兵役免除 또는 免除者 (82年 服役者)
	化學工業・機械工業 電子工業・纖維工業 食品工業・獸醫學 藥料産業	○○名	① 1953年 1月 1日以後 出生한 男子

2. 報到方法

① 書類送達 ② 筆記(英語・常體・國文) ③ 面試

3. 同席事項

① 入社志願書(當社所定様式) 1部
② 大學全學年成績證明書 1部
③ 兵役證明書(免除者限) 1部